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제상황 평가(2026년 1월)

- ▣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25.11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성장세 예상
 - 반도체 경기,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성장 흐름 등이 성장경로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 ▣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 등 상방요인과 국제유가 약세, 정부 물가 대책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며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안정 흐름 전망
 -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과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흐름 등에 주로 영향 받을 전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경제상황 평가(2026년 1월)** 참조

[문의처: 조사국·경제모형실]

경제성장: 조사총괄팀 차 장 조병수 (02-759-4202), 과 장 최영우 (4167), 조사역 강보민 (4172)

세계경제: 국제종합팀 과 장 이택민 (4280) 경상수지: 국제무역팀 차 장 임용지 (4186)

물 가: 물가동향팀 과 장 이승호 (4213) 고용·임금: 고용동향팀 과 장 이영호 (4205)

경제모형: 모형전망팀 과 장 박병국 (4137)

[공보관] 02-759-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 백

<붙임>

경제상황 평가

2026년 1월

I. 세계경제 1

II. 국내경제 8

BOX 중국의 수출 전환 추진이 ASEAN 경제에 미친 영향.. 11

<부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17

<부록 2> 주요 이슈 분석목록 19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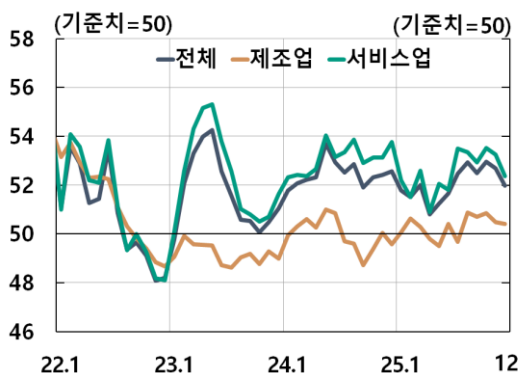
- ▶ 국내경제는 비π 수출·투자가 美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환율 등 상방요인과 국제유가 약세,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 ▶ 전망경로 상에는 반도체 경기, 글로벌 통상환경, 환율과 유가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

I. 세계경제

□ 금년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3% 내외의 성장흐름이 예상되며, 주요국 무역정책 및 AI 경기 향방이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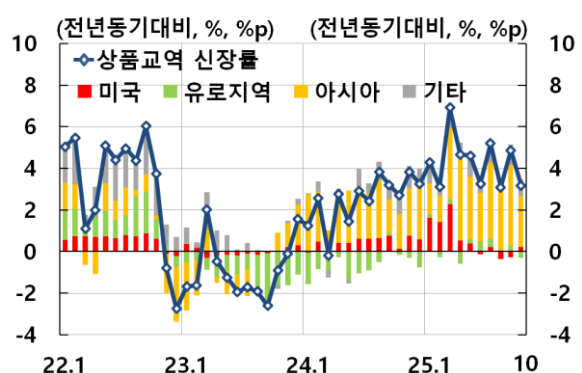
-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관세영향, 고용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확대,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유로지역**은 그간의 금융여건 완화와 주요국 재정책확대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수출증가세 둔화 및 더딘 내수회복으로 성장률이 4%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PMI



자료: S&P Global, JPM

상품교역 지역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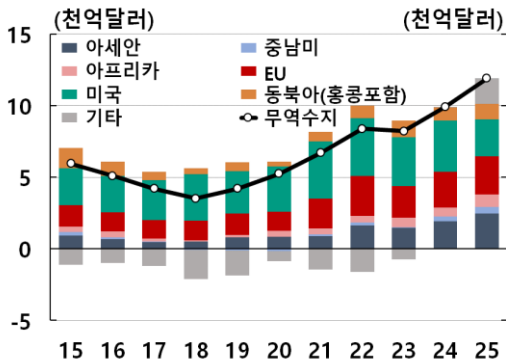


자료: CPB, 조사국 추정

FY11 최근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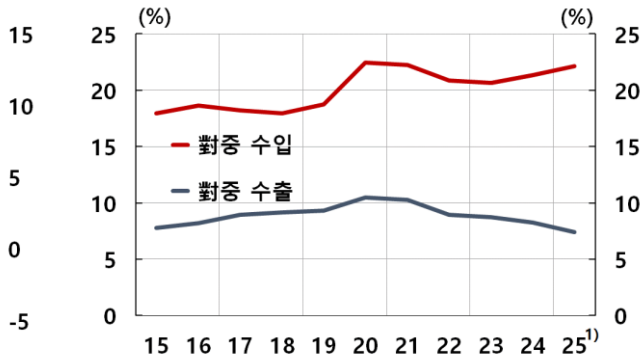
2025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19.8% 증가한 1조 1,890억달러로 역대 최초로 1조달러를 상회하였다. 국가·지역별로는, 美관세부과의 영향으로 對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24년} 3,599억달러 → 25년 2,803억달러한 반면, 수출국 다변화 노력으로 미국외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對 EU 2,467억달러 → 2,919억달러, 對아세안 1,911억달러 → 2,767억달러, 對아프리카 622억달러 → 1,023억달러 흑자는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 이에 EU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흑자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가 ①美관세충격 대응, ②자국내 공급과잉 해소, ③신흥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¹, EU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중국제품의 위상제고로 독일 등 유럽내 제조업 강국의 對중 수출이 줄면서^[그림 2] 2025년 EU의 對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팬데믹 이전(2015~19년)의 2배 수준까지 확대되었다.^{2015~19년 -1,519억유로 → 2020~24년 -2,869억유로 → 25.1~10월중 -3,003억유로.}

[그림 1] 중국 무역수지



자료: 해관총서

[그림 2] EU 對중 무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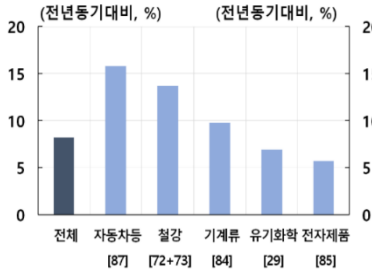
주: 1) 25년은 1~10월중
자료: Eurostat

EU 등 미국외 지역에 대한 중국 수출은 전기차, 철강, 배터리, 태양광 등 공급과잉 품목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3] 일례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자국내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 이후 생산과 국내판매 격차가 확대되자^[그림 4],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². 내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기업간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규제도 강화되자 중국기업은 미국외 지역으로 공급과잉 품목들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들 국가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평가^{ECB 2025.7}도 있다. 중국 수출단가의 경우 2023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는 기간중 절반 가까이 하락하였다.^[그림 5]

¹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1월 경제전망보고서의 [BOX]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에 대한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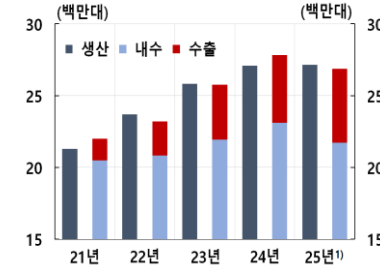
² 글로벌 전기차 기업 상위 10개사^{인도량 기준} 중 중국 기업 수는 2021년 3개에서 25.1~11월 6개로 증가했으며, 이들 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기간중 23.8%에서 46.3%로 확대되었다.^{SNE Research}

[그림 3] 중국 對EU 수출 증가 주요 품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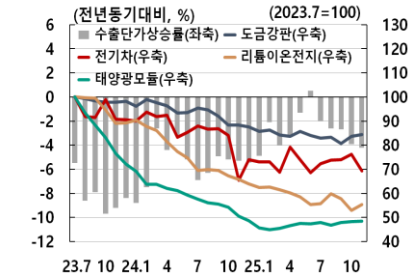
주: 1) 25.1~11월 평균
자료: 해관총서

[그림 4] 중국 승용차 생산·내수·수출



주: 1) 25년은 1~11월중
자료: 중국승용차협회(CPCA)

[그림 5] 최근 중국 수출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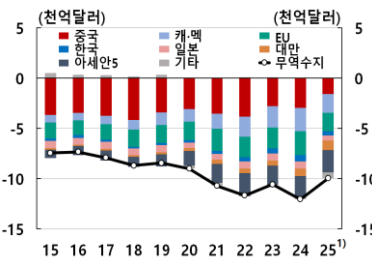


자료: 해관총서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EU, 멕시코 등은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 들어서는 철강 부문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축소^{1,830만톤, 24년 대비 -47%}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인상^{25% → 50%}하는 등 새로운 세이프가드 운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전면 시행하였는데, 동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목적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경우 2026년 1월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품목^{자동차, 기계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최대 50%}하였는데 이는 對미 우호적 관계 확립, 관세수입 확보에 더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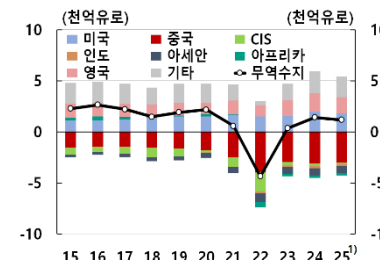
시장에서는 2026년 중국의 무역수지를 1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³하는 등 중국의 무역수지 확대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對미 수출위축 및 자국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중국의 미국외 여타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 6, 7, 8}.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완화를 위한 미국의 對중 압력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對중 견제도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EU 등 여타국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⁵.

[그림 6] 미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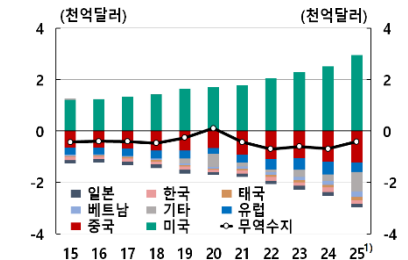
주: 1) 25년은 1~9월중
자료: Census Bureau

[그림 7] EU 무역수지



주: 1) 25년은 1~10월중
자료: Eurostat

[그림 8] 멕시코 무역수지



주: 1) 25년은 1~10월중
자료: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GE)

³ 시장에서는 중국의 2026년 수출 증가율을 2.4%, 수입 증가율은 1.3%로 전망하였다. Bloomberg 중간값(1.1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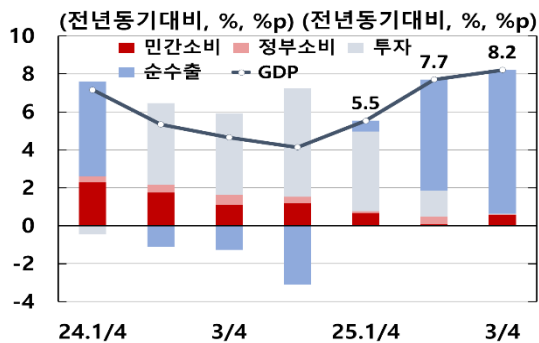
⁴ Goldman Sachs는 중국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2024년 2.2%에서 25년 3.6%, 26년 4.2%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1,5월}

⁵ Nomura는 EU-중국간 무역갈등은 '제2의 차이나 쇼크'로 부상한 핵심 리스크로,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25.12.24일}

FY12 대만의 경제 양극화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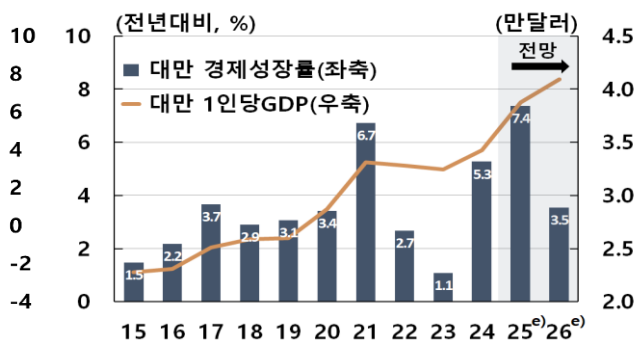
글로벌 AI 확산에 힘입어 반도체 강국 대만은 눈부신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3/4분기 대만경제는 전례 없는 호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수출로 전년동기대비 8.2% 성장했다.^[그림 1] 대만은 2025년 7%대 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3%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그림 2] 이에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먼저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⁶되고 있다.

[그림 1] 대만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대만 주계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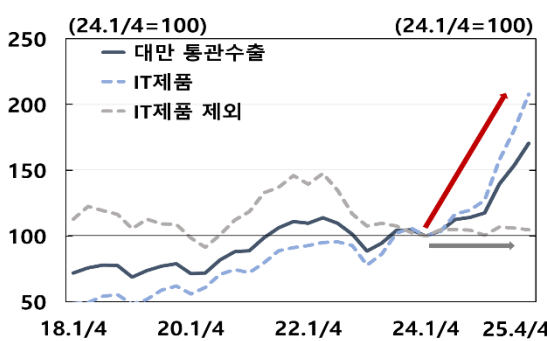
[그림 2] 대만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자료: 대만 주계총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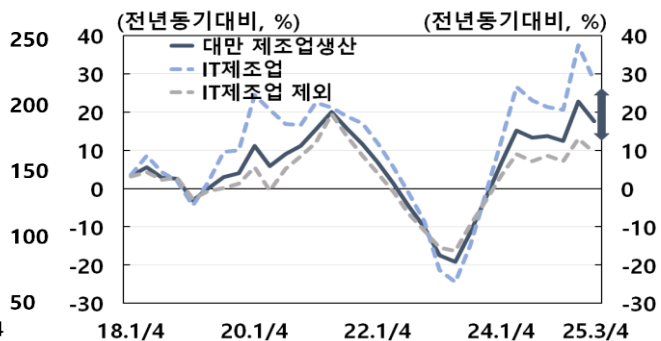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호조가 반도체 수출에 기인하면서 부문별 양극화^{K-Shaped}가 두드러지고 있다.^[그림 3] 먼저, ①산업간에는 반도체·非반도체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AI 반도체 수요가 확산된 24년 이후 최근까지 대만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⁷ IT제품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기기 수출은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비IT제품은 정체되면서^[그림 3] IT제조업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과 비IT제조업간 생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4] 이에 따라 대만의 산업구조는 IT제조업 위주의 편중이 심화되었다⁸.

[그림 3] 대만 품목별 수출



자료: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그림 4] 대만 산업별 제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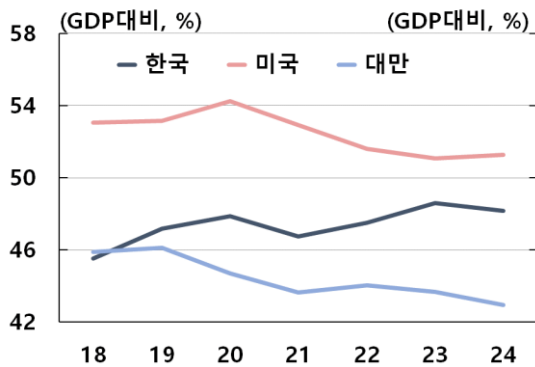


자료: 대만 주계총처

⁶ IMF(WEO, 25.10월)는 대만, 한국, 일본의 2026년 1인당 GDP를 각각 4.16만달러, 3.75만달러, 3.64만달러로 예상하였다.
⁷ IT제품 수출은 견조한 AI·고성능 반도체 수요로 크게 증가^{25년중 53.0%(통관수출)}한 반면, 비IT제품 수출^{-0.2%}은 관세정책 등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⁸ 자세한 내용은 <참고>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및 IT제조업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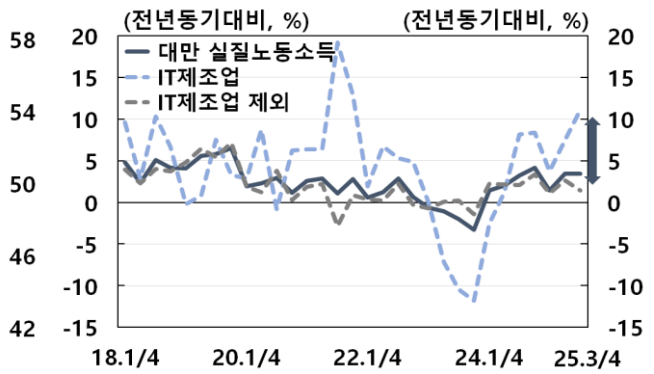
이에 ②반도체 수출 호실적이 전체 가계의 소득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아 민간소비가 부진. 25.1/4~3/4분기 중 0.9%을 지속하는 등 기업, 가계간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IT 대기업(TSMC, 폭스콘, 미디어텍 등)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만의 노동소득 분배율(GDP대비 피용자보수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5] 실제 대만의 25년 1~10월 월평균임금은 6.4만TWD(≒290만원)로 전년동기에 비해 4% 늘었지만 여전히 한국(420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대만 고용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IT제조업 이외의 부문은 부진을 지속하면서 전체 가계의 실질구매력(실질노동소득 기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그림 6] 이에 따라 24년 이후 대만은 수출이 40% 증가하는 동안 소비는 거의 늘지 못하면서[그림 7] 25.3/4분기 수출 비중은 75%로 급상승하고 민간소비 비중은 44%로 축소되었다.[그림 8]

[그림 5] 주요국 노동소득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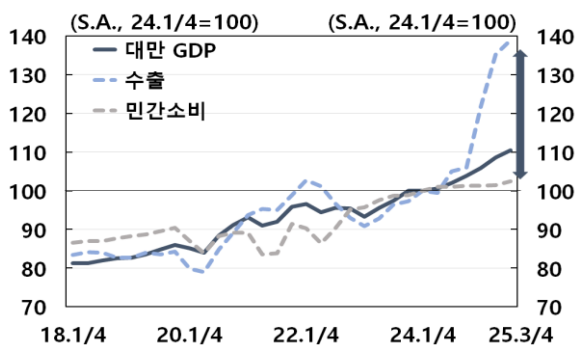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EA,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그림 6] 대만 산업별 실질노동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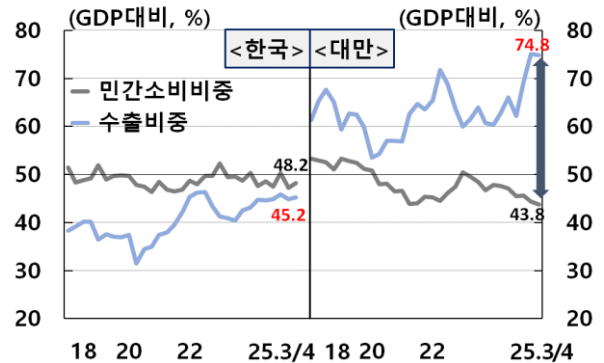
주: 1) '1인당임금×종사자수/소비자물가'로 시산
 자료: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그림 7] 대만 소비, 수출 격차



자료: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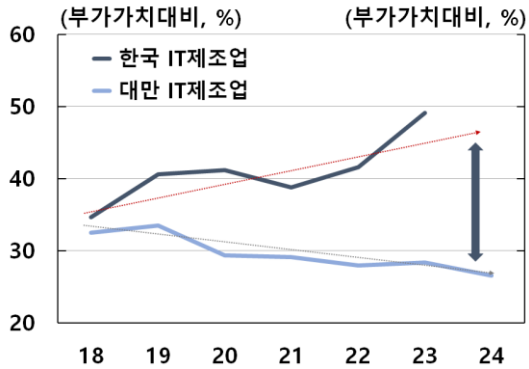
[그림 8] 한국과 대만 소비, 수출 비중



자료: 한국은행,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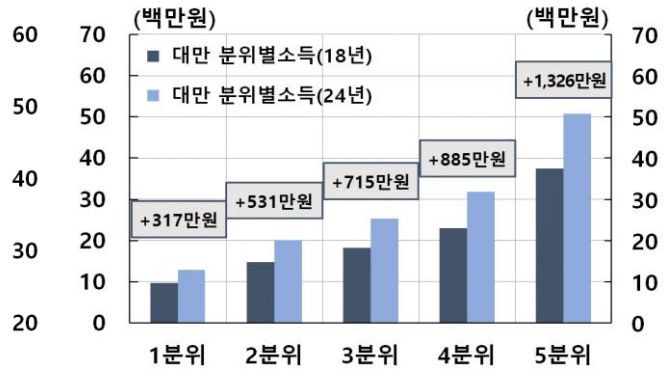
더욱이 IT기업들 실적호조에 따른 임금 보상이 기업간 편차가 큰 데다⁹ 특정 부문에 집중되면 서그림⁹의 ③가계 내에서도 격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득분위별 소득격차는 개선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정도가 더딘 상황이다^{그림10}.

[그림 9] 한국과 대만 IT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¹²⁾



주: 1) IT제조업 피용자보수/IT제조업 부가가치
 2) 점선은 추세
 자료: 한국은행,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그림 10] 대만 분위별 균등화 개인소득¹⁾



주: 1) 평균가처분소득/(평균가구원수)⁰⁵
 자료: 대만 주계총처, 조사국 시산

대만경제의 양극화 심화는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 하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로 달성한 성장의 과실이 산업전반 및 가계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만 정부는 증시호조,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전국민을 대상 1인당 1만TWD (≒47만원) 규모의 현금 지급을 결정^{25,10월}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대만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반도체 산업에 치우친 성장과 낮은 노동소득 분배 등 구조적 문제로 대만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⁹ 대만은 중소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주요 IT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25,1/4~3/4}을 보면 반도체칩 생산을 담당하는 TSMC는 10% 정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과 비슷한 반면, 전자부품·IT기기 생산 기업인 ASUS, Quanta Computer, Foxconn 등은 3~5%대로 상당히 낮다.

<참고>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

	2023	2024	2025				
			1/4	2/4	3/4	4/4 ^{e)}	연간 ^{e)}
• 경제성장률(YoY, %)	1.1	5.3	5.5	7.7	8.2	7.9	7.4
- 민간소비	80	32	1.4	0.2	1.2	3.1	1.5
- 총고정자본형성	-7.6	7.1	18.4	11.5	9.3	1.2	9.7
* 건설투자	-40	5.4	3.8	4.8	0.7	-	-
* 운송장비투자	10.5	-4.2	-3.9	6.7	-6.7	-	-
* 기계장비투자	-21.7	14.7	59.3	23.2	26.1	-	-
- 수출	-4.1	8.7	20.7	36.3	32.0	34.8	31.1
- 수입	-5.5	11.6	25.3	33.0	26.1	29.3	28.5
• 경상수지(억달러)	1,058	1,128	296	368	458	-	-
• 소비자물가(YoY, %)	2.5	2.2	2.2	1.6	1.5	1.3 ³⁾	1.7 ³⁾
• 1인당 GDP(달러)	32,444	34,238	8,689	9,498	10,176	10,385	38,748
• 1인당 GNI(달러)	33,526	35,531	8,983	9,767	10,289	10,806	39,845
• 명목GDP(천억달러)	7.6	8.0	2.0	2.2	2.4	2.4	9.5
• 인구(만명)	2,342	2,340	2,338	2,335	2,332	-	-
• 고용(만명)	1,153	1,156	1,157	1,158	1,158	-	-
• 실업률(%)	3.5	3.4	3.3	3.3	3.4	-	-
• 외환보유액(억달러)	5,706	5,767	5,780	5,984	6,029	6,026 ³⁾	6,026 ³⁾
• 환율 2(NT\$/\$)	31.145	32.106	32.882	30.956	29.930	31.068 ³⁾	31.169 ³⁾

주: 1) 기말 기준 2) 기간중 평균 3) 실적치
 자료: 대만 주계총처, 대만 중앙은행

대만 IT제조업 현황¹⁾

	한국			대만		
	2019	2024	2025	2019	2024	2025
<IT제조업 생산>						
• GDP 대비	7.2%	7.3%	7.8%	15.2%	22.1%	-
• 제조업생산 대비	27.2%	27.4%	28.6%	47.4%	62.2%	-
<IT제조업 고용>						
• 종사자수	39.4만명	38.6만명	38.6만명	84.9만명	87.4만명	89.3만명
- 전체종사자수대비	2.1%	1.9%	1.9%	10.3%	10.3%	10.5%
<IT제품 수출>						
• 통관수출금액	5,422억\$	6,836억\$	7,097억\$	3,292억\$	4,749억\$	5,874억\$
• IT제품수출	1,769억\$	2,350억\$	2,643억\$	1,551억\$	3,097억\$	4,345억\$
- 통관수출 대비	32.6%	24.4%	37.2%	47.1%	65.2%	74.0%

주: 1) 25년 생산은 1/4~3/4분기, 고용은 1~10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무역통계진흥원, 대만 주계총처, 대만 재정부, 조사국 시산

II.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비IT 수출·투자가 美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성장경로^{26년 1.8%}를 나타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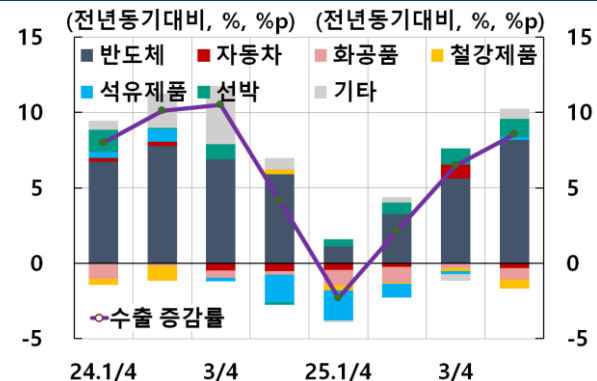
- ▶ 25년에는 3/4분기 성장률이 상향수정 1.2% → 1.3%되었으나, 4/4분기 성장률은 투자 부진으로 예상 0.2%을 하회하면서 연간 전체로 11월 전망 수준 1.0%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6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부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다. 수출의 경우 비IT 품목이 美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반도체는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27년에는 내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심리 및 카드사용액¹⁾



주: 1) 점선은 분기 평균 수준
자료: 한국은행

통관수출 품목별 기여도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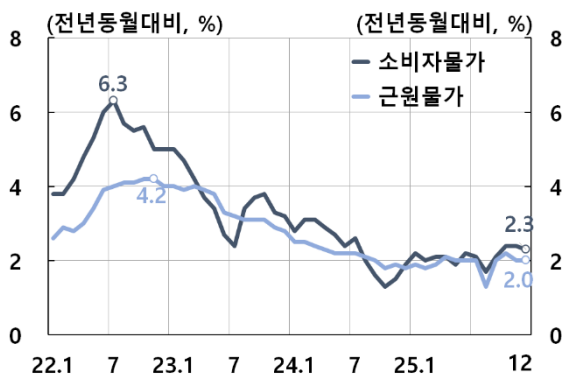
□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의 영향에도 국제유가 약세, 정부 물가대책 등으로 당초 예상 CPI 2.1%, 근원 2.0%에 부합할 전망이다.

▶ 25년 소비자물가*는 2.1%, 근원물가는 1.9% 상승하여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였다.

*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농산물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2.3%로 전월2.4%에 비해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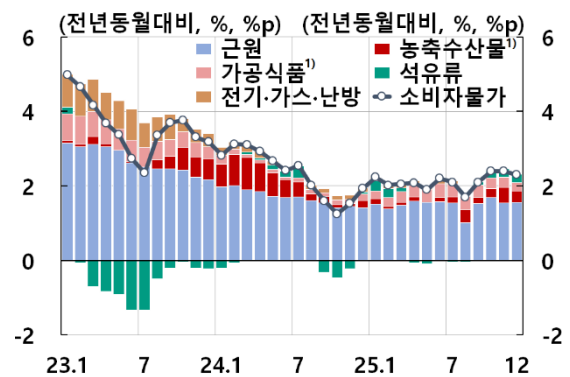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2%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목표수준 2.0%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연중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주: 1) 근원품목 제외

자료: 국가데이터처

□ 올해 경상수지는 지난 전망 수준^{1,300억달러}에 부합하는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25년은 반도체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전망^{1,150억달러}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통관수출(7,097억달러)은 반도체 수출이 AI發 수요급증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21.9%) 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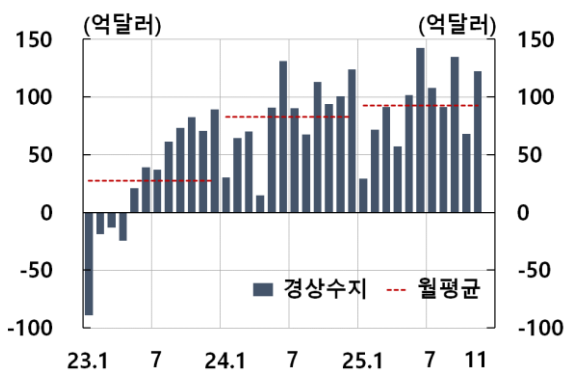
■ 교역둔화, 해상운임 하락에 따른 운송수지 악화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커지겠으나, 반도체가격 상승과 유가하락으로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확대될 전망이다.

□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전망^{15만명}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5년 취업자수는 건설·제조업 부진에도 서비스업이 정부 일자리 정책과 소비 개선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대비 19.3만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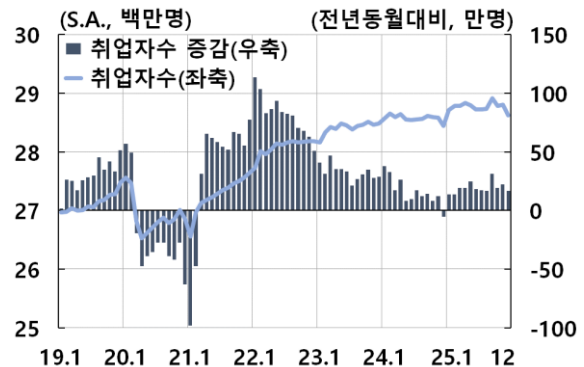
■ 공공부문 고용은 증가규모가 전년보다 다소 축소되겠다. 반면 민간 부문 고용은 AI확산 영향, 비IT부문 부진 등의 제약요인에도 소비 개선세 지속, 건설경기 부진 완화에 힘입어 개선될 전망이다. 전망경로상에는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가계·기업의 대응, 일부 업종 구조조정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

월별 경상수지¹⁾



주: 1) 25년 월평균은 1~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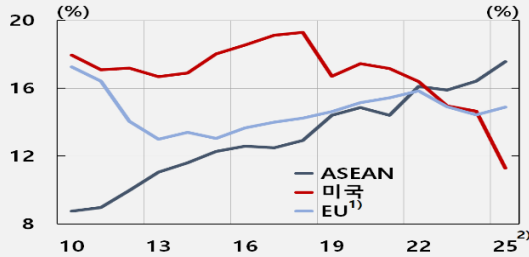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BOX 중국의 수출 전환 추진이 ASEAN 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부터 미·중 무역갈등에 대응하여 對미 수출비중을 줄이고 ASEAN 등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ASEAN은 2023년 이후 미국과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그림 1]했다. 최근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¹⁰으로 중국의 수출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중국의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액 중 약 30% 정도를 ASEAN이 차지[표 1]했다.

[그림 1] 중국의 경제권역별 수출비중



주: 1) 영국 제외 2) 25년은 1~11월중
 자료: 중국 해관총서

[표 1] 중국의 미국 이외 지역 수출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25.1~'10	'24.1~'10	증가액	증가율	기여율
ASEAN	5,417	4,741	677	14.3	29.2
아프리카	1,805	1,433	373	26.0	16.1
EU	4,611	4,285	326	7.6	14.1
인도	1,121	999	122	12.3	5.3
미국 이외	27,356	25,039	2,318	9.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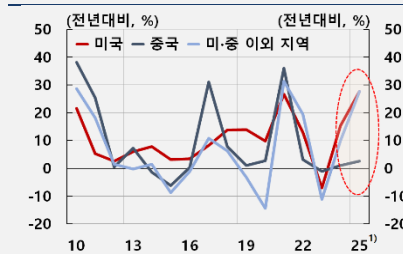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년중 중국의 수출 전환의 중심이 된 ASEAN에서는 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對중국 무역불균형이 심화되었고 ② 물가는 하방압력이 나타났으며 ③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일부 현지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ASEAN의 수출 증가세 확대 및 對중 의존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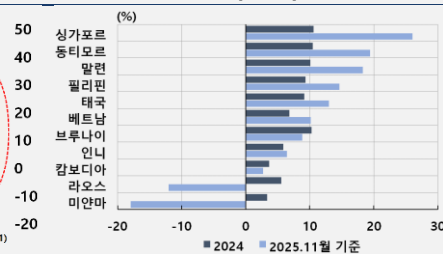
(수출) 2025년중 미국의 관세정책 및 이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시장 전환 과정에서 ASEAN 수출은 증가세가 확대[그림 2]되었다. 對미 수출의 경우 중국에 비해 낮은 ASEAN의 관세율¹¹, [그림 3]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 ASEAN 제품의 중국 제품 대체가 가속화되었다.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3.4%에서 2025년(1~10월중 기준)에는 9.3%로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 반면 ASEAN-5 제품의 비중은 2024년 9.0%에서 2025년에 11.2%로 가파르게 상승[그림 4]하였다. 미국 이외 시장에서도 ASEAN은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확대, 중국의 중간재를 활용한 경쟁력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다만 對중 수출은 중국내 내수부진 및 공급과잉 등으로 증가세가 미약하였다.

[그림 2] ASEAN의 지역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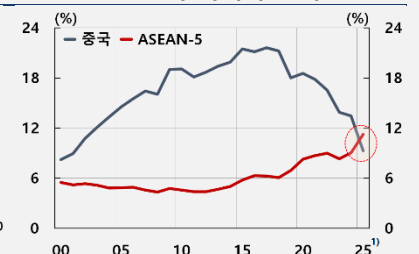
주: 1) 25년은 1~8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CEIC

[그림 3] 중국과 ASEAN의 對미 수출 실효관세율 차이¹⁾



주: 1) 미국의 對중 실효관세율 - 對ASEAN 실효관세율
 자료: Fitch Ratings

[그림 4] 미국 수입에서 중국과 ASEAN-5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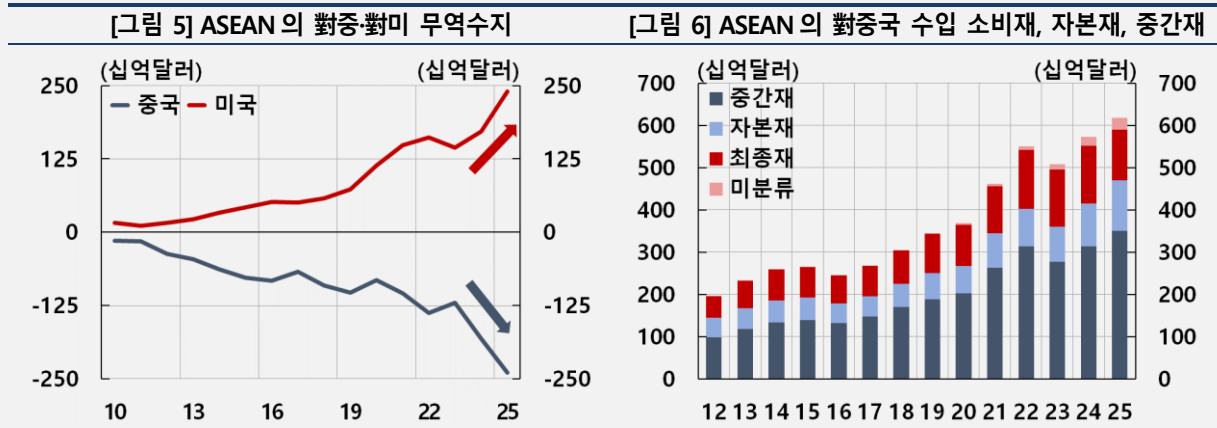
주: 1) 25년은 1~10월중
 자료: CEIC

¹⁰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중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조치(최대 25%)가 이뤄진 반면 트럼프 2기에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한 기본관세 외에도 특정품목에 대한 별도 조치(25~50%) 등으로 관세정책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¹¹ ASEAN 지역에도 중국과 비슷한 상호관세율(2025.11월 기준)이 부과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팬타닐 관세 등으로 상대적으로 ASEAN 국가들의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對중국 무역불균형) 2025년 들어 ASEAN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이 對중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다.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한 對미 수출로 對중 무역적자 - 對미 무역흑자의 구조가 더욱 강화(그림 5)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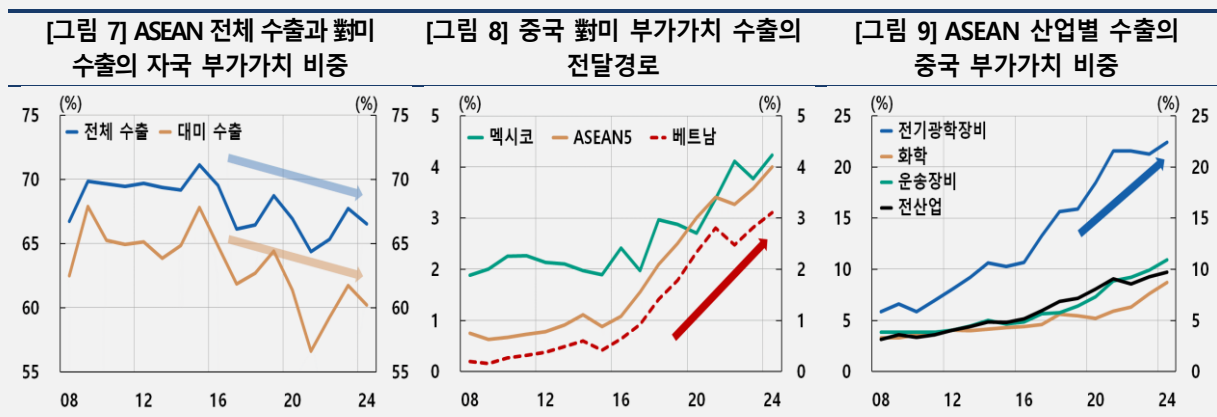
ASEAN의 對중국 수입은 용도별로 보면,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간재 중심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대 들어 소비재와 자본재도 확대(그림 6)되어 왔다. 2025년에는 중간재 수입이 중국의 우회수출 등으로 더욱 증가하고, 자본재 수입도 역내투자 확대에 증가하였다.



주: 1) 25년은 1~8 월중 추세가 9~12 월에도 이어졌다고 가정
 자료: CEIC
 주: 1) 25년은 1~11 월중 추세가 12 월에도 이어졌다고 가정
 자료: 중국 해관총서

(공급망 의존도) 미·중 갈등 이후 ASEAN은 중국의 대체 생산거점(China+1)으로 부상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이 가속화되었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으로 ASEAN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아직은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부품 조달을 중국에 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

국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ASEAN 수출은 자국 부가가치 투입 비중(그림 7)이 낮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對미 수출의 경우 자국 투입 비중이 더욱 낮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對미 부가가치 수출경로(최종가공)(그림 8)로 ASEAN(특히 베트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ASEAN의 전기광학장비 수출에서 중국 부가가치 투입 비중이 크게 높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그림 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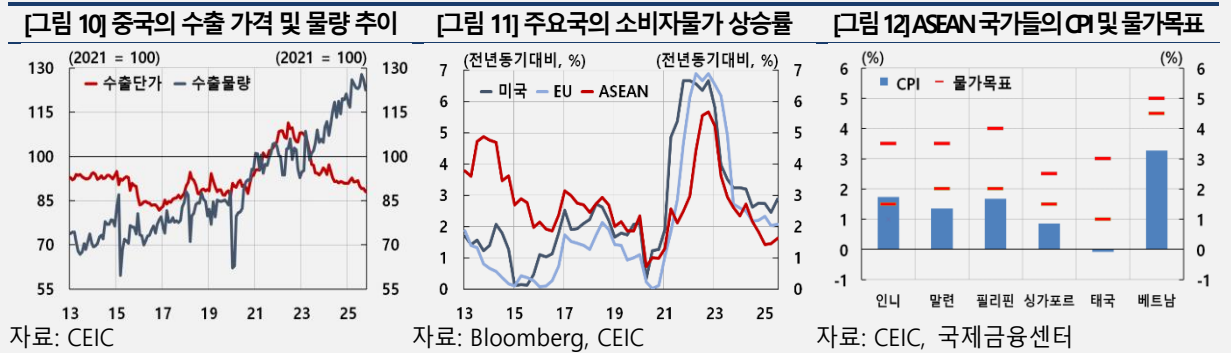


자료: ADB MRIO, 자체 시산
 주: 1) 對미 수출의 최종가공지 기준
 자료: ADB MRIO,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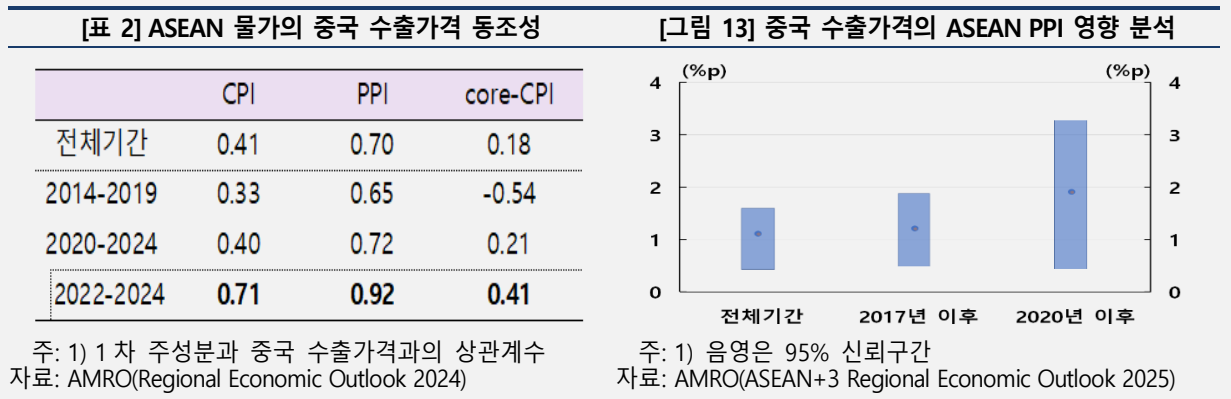
2. 물가 하방압력 증대

중국을 과잉생산, 내수부진 등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재점화 된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수출 전환이 베트남, 태국 등 ASEAN 국가들에 집중됨에 따라 이 지역에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2022년 이후 중국의 수출 가격은 약 20% 하락^[그림 10]한 반면 수출 물량은 약 30% 증가하며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 확대는 수입국 내 가격 하락을 유발하였다.

현재 ASEAN 국가들의 CPI 상승률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그림 11]으로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수준을 대부분 하회^[그림 12]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2019년 트럼프 1기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수출 전환과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 등으로 선진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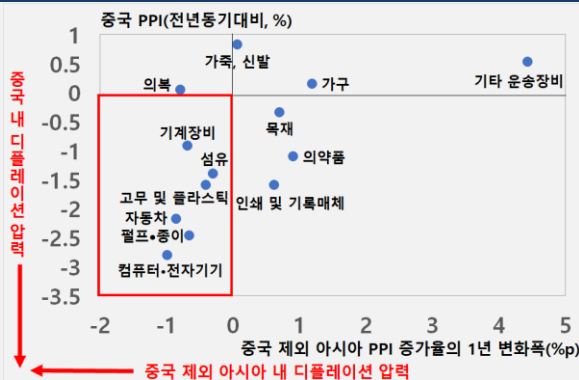
ASEAN은 부품·중간재 공급망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비원자재 생산자 물가지수(PPI) 중심으로 하방압력이 커졌다**. AMRO(2025)¹²는 미·중 갈등이 심화된 2017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며 중국의 수출 가격이 ASEAN PPI에 미친 영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역내 경제들의 물가 변동의 주성분 분석 결과, 공통요인(1차 주성분)이 생산자물가의 60%, CPI의 40%를 설명하는 등 유의미한 동조성을 나타내었다. 중국의 수출가격과 공통요인(1차 주성분)의 동조성^[표 2]은 중국의 수출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한층 높아졌다. 또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한 중국 수출가격의 ASEAN PPI에 대한 영향도도 최근 들어 강화^[그림 13]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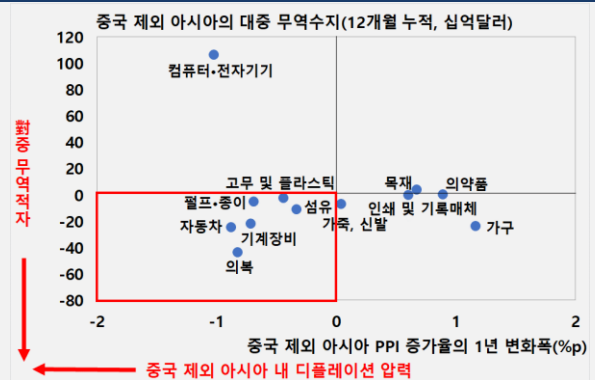
¹²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5(67p)

품목별로 보면 중국 내에서 과잉공급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PPI 품목들의 상당수가 ASEAN 지역에서도 약세[그림 1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ASEAN 지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품목들로 최근 ASEAN 지역으로 수출 전환이 크게 확대된 품목들이기도 하다. ASEAN 지역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섬유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非원자재 PPI의 하락이 나타났다.

[그림 14-1] ASEAN 과 중국의 PPI 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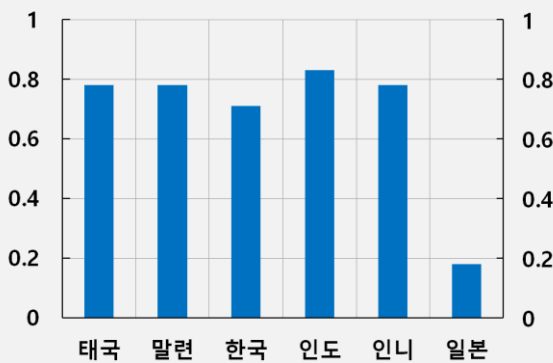
[그림 14-2] ASEAN PPI와 對중국 무역수지 간 관계



자료: Haver, Morgan Stanley(「Which Asian economies are more exposed to deflationary pressures from China?」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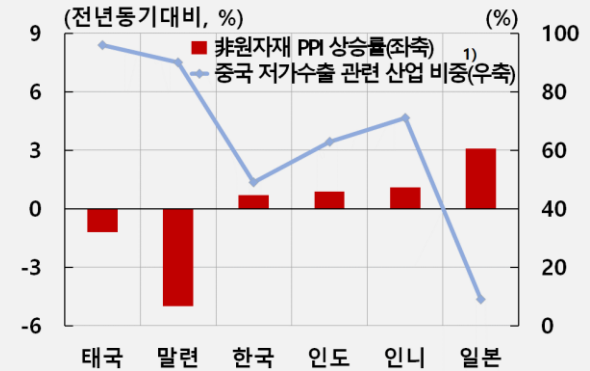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수출가격과의 동조성[그림 15], 중국의 저가 수출로 PPI가 동반 하락하는 제조업 부문¹³의 비중[그림 16]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중국의 저가 수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5] 중국 수출가격과 非원자재 PPI 간 상관관계



자료: Haver, Morgan Stanley

[그림 16] ASEAN 국가 등 非원자재 PPI 상승률



주: 1) ASEAN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PPI가 중국과 ASEAN에서 동시에 하락한 제조업 부문 비중
 자료: Haver, Morgan Stanl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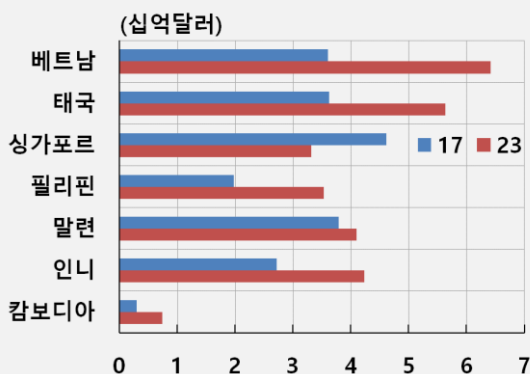
¹³ ASEAN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PPI가 중국과 ASEAN에서 동시에 하락한 제조업 부문이다.

3. 일부 현지기업의 경영 악화

그동안 중국의 저가 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ASEAN 현지기업은 중국의 수출 전환으로 경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산 소비재 수입^[그림 17]은 대부분의 ASEAN 국가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2017~2023년 ASEAN의 중국산 소비재 수입은 70%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캄보디아는 128%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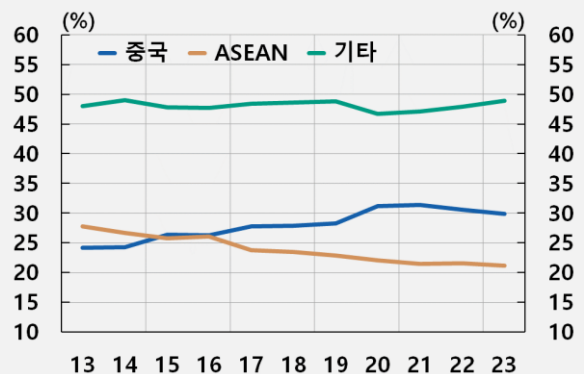
한편 ASEAN 지역 내 업체들은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수출시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그림 18]되었다. 2017년 이후 역내 소비재 수입에서 ASEAN 내부 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산 수입 증가와 함께 꾸준히 감소해 왔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섬유 업계는 2022~2024년 사이 60개 공장 폐쇄와 25만명 실업이 발생¹⁴하였고 2025년도에도 ASEAN 최대 섬유업체 스텍스(Sritex) 파산 등을 중심으로 추가로 28만명 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2024년중 저가 소비재 유입의 주요 경로인 특정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의 자국 내 운영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사회불만이 커지자 각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일부 거래형태와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 17] ASEAN 국가들의 對중국 소비재 수입



자료: Lowy Institute

[그림 18] ASEAN 전체 소비재 수입의 국가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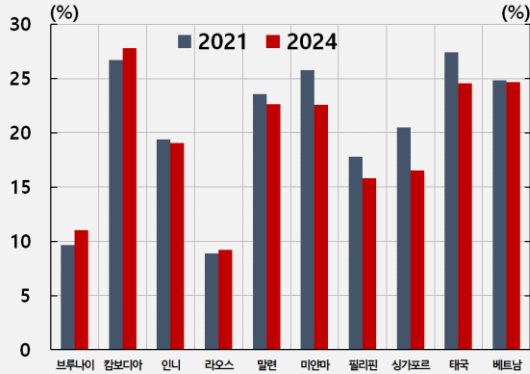


자료: Lowy Institute, UN Comtrade

2021~2024년중 ASEAN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對중국 의존 및 소비재 수입 증가로 대부분 ASEAN 국가들이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그림 19]되었다. 중국의 저가 수출이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소비재뿐만 아니라 철강,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건설기계, 재생에너지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일부 역내 국가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제조업 가동률이 2021년 65.1에서 이후 2025년 58.7로 낮아지고 생산지수도 2022년 101.5에서 2025년 96.0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23~2024년중 가전, 자동차 및 부품, 철강,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4,300여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⁵ 베트남은 2024년 이후 중국산 열연강판의 수입 급증으로 2025년 3월 중국산 열연강판에 27.83%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¹⁴ USCC(2025 Report to Congress),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2025.2월) "ASEAN Caught Between China's Export Surge and Global De-Risking"

[그림 19] ASEAN 국가들의 GDP 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World Bank, UN Comtrade

[표 3] ASEAN 국가들의 생산 위축 사례

■ 섬유	(인도네시아) ASEAN 최대규모 섬유 의류 업체인 스텀릭스(Sritex)는 섬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2025년 3월)하는 등 2022~2024년 사이 60개 공장 폐쇄와 25만명 실업이 발생
■ 자동차	(인도네시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22년 150만대 정점에서 2024년 120만대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73% 증가 (말레이시아) 자동차 생산이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중국 자동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 전기차(BYD 등)의 시장 점유율은 2025년 50%대를 기록 (태국) 자동차 생산 가동률이 2022년 75.3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51.6을 기록
■ 철강	(태국) 2025년중 71개 철강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철강 부문 가동률이 18.4로 급감

자료: USCC(2025 Report to Congress),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2025), CEIC

중국의 수출처 전환이 ASEAN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보면, 수출 증대, 물가 안정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물가 하락압력 확대에 의한 역내 경쟁업체의 경영 악화, 실업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ASEAN 국가들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제조업 산업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1>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세계경제]

(전기대비, %)	2024	2025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¹⁾	2.8	..	-0.6	3.8	4.3	..	-	-	-
산업생산 ²⁾	-0.3	..	1.0	0.5	0.5	..	-0.1	0.2	..
미 소매판매	3.0	..	0.4	0.7	1.4	..	-0.1	0.6	..
국 소비자물가 ³⁾	2.9	2.6	2.7	2.4	2.9	2.7	-	2.7	2.7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천명)	2,091	1,433	521	280	88	-56	-173	56	50
GDP성장률	0.9	..	0.6	0.1	0.3	..	-	-	-
산업생산 ²⁾	-3.0	..	2.1	-0.4	-0.1	..	0.8
EU 소매판매	1.3	..	0.5	0.8	0.2	..	0.3	0.2	..
통관수출 ⁴⁾	0.7	..	7.4	-5.7	-0.2	..	-4.6
소비자물가 ³⁾	2.4	2.1	2.3	2.0	2.1	2.1	2.1	2.1	2.0
GDP성장률 ³⁾	5.0	..	5.4	5.2	4.8	..	-	-	-
산업생산 ²⁾³⁾	5.8	..	6.5	6.2	5.8	..	4.9	4.8	..
중국 소매판매 ³⁾	3.5	..	4.6	5.4	3.4	..	2.9	1.3	..
고정투자 ³⁾⁵⁾	3.2	..	4.2	2.8	-0.5	..	-1.7	-2.6	..
통관수출 ³⁾	5.8	5.5	5.6	6.1	6.5	3.9	-1.2	5.9	6.6
소비자물가 ³⁾	0.2	0.1	-0.1	0.0	-0.2	0.6	0.2	0.7	0.8

주: 1) 전기대비 연율 2) 광공업 기준 3) 전년동기대비 4) 역내거래 제외 5) 누계 기준
 자료: Fed, BEA, BLS, Eurostat, 중국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국제에너지 가격]

(기간중 평균)	2024	2025								2026 1월 ³⁾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Dubai유 ¹⁾	80	68	76	66	68	63	64	64	62	62
Brent유 ¹⁾	80	68	75	67	68	63	64	64	62	62
유럽 천연가스 ²⁾	35	36	47	36	33	30	32	31	28	29

주: 1) 달러/배럴 2) 유로/MWh 3) 1.1~13일까지의 평균
 자료: Bloomberg

[국내경제]

(전기대비, %)	2024	2025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 성장률	2.0	..	-0.2	0.7	1.3	..	-	-	-
소매판매액 (전년동기대비)	-2.1	..	0.4 (-0.3)	-0.9 (0.0)	1.5 (1.5)	..	3.6 (0.4)	-3.3 (0.8)	..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대비)	2.9	..	-1.7 (5.7)	0.0 (5.3)	5.7 (1.9)	..	-14.1 (-4.3)	1.5 (-0.1)	..
건설기성액 (전년동기대비)	-4.7	..	-6.4 (-21.2)	-3.2 (-17.4)	2.7 (-11.8)	..	-21.1 (-24.8)	6.6 (-17.0)	..
통관수출(억\$) (전년동기대비)	6,836 (8.1)	7,097 (3.8)	1,595 (-2.3)	1,751 (2.1)	1,849 (6.5)	1,901 (8.5)	595 (3.5)	610 (8.4)	696 (13.4)
통관수입(억\$) (전년동기대비)	6,318 (-1.7)	6,317 (-0.0)	1,528 (-1.3)	1,543 (-1.8)	1,624 (1.5)	1,622 (1.4)	535 (-1.5)	513 (1.1)	574 (4.6)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전년동기대비, %)	2024	2025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물가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4	2.4	2.4	2.3
	근원물가 ¹⁾	2.2	1.9	1.9	2.0	1.7	2.0	2.2	2.0	2.0
경상수지	경상수지(억\$)	990	..	193	301	334	..	68	122	..
	상품	1,001	..	192	328	339	..	78	133	..
	서비스	-237	..	-75	-76	-76	..	-38	-27	..
	본원·이전	226	..	76	49	71	..	27	17	..
고용	취업자수 증감 (만명)	15.9	19.3	15.5	20.7	21.6	19.5	19.3	22.5	16.8
	실업률(S.A., %)	2.8	2.8	2.8	2.7	2.5	3.1	2.6	2.7	4.0

주: 1) 에너지, 식료품 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부록 2> 주요 이슈 분석목록
(경제전망보고서 Indigo Book · 경제상황 평가)

수록호	제목	작성부서/팀	대표저자
2025.1월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미국유럽경제팀	민동길
2월	<input type="checkbox"/> BOX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 개별 품목을 통한 파급경로를 중심으로	물가동향팀	조강철
	핵심이슈 美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조사국 경제모형실	이택민
4월	<input type="checkbox"/> BOX 금년 1/4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조사총괄팀	최영우
5월	<input type="checkbox"/> BOX 美관세정책이 우리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팀	임웅지
	핵심이슈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팀 모형전망팀	박동현
	중장기 심층연구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경제연구원	이재원
7월	<input type="checkbox"/> BOX 반도체 수출 경기사이클 _{cycle} 이번에는 다를까?	국제무역팀 경기동향팀	임웅지
8월	<input type="checkbox"/> BOX 중국의 최근 소비여건 점검	중국경제팀	이준호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경기동향팀	양준빈
	핵심이슈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팀	임웅지
10월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수출 및 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무역팀	임웅지
	<input type="checkbox"/> BOX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現노동시장 상황 평가	미국유럽경제팀	정희완
	<input type="checkbox"/> BOX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김보희
11월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에 대한 평가	중국경제팀	이준호
	<input type="checkbox"/> BOX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재정산업팀	하정석
	핵심이슈 부동산궤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구조분석팀	김찬우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경제연구원	장근호
2026.1월	<input type="checkbox"/> BOX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요인 점검	미국유럽경제팀	정희완
	<input type="checkbox"/> BOX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국제무역팀	진찬일
	<input type="checkbox"/> BOX 중국의 수출 전환 추진이 ASEAN 경제에 미친 영향	아태경제팀	김보희